

칼럼 · Column

도서관의 3요소를 생각하며!



신 동 민
한국도서관협회 출판위원회 위원장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domishin@hnu.kr

현대를 정보사회 또는 지식정보보호사회라 지칭한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사회 모든 부문, 분야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뿐 아니라 지식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지식창조와 발전에 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질을 크게 변화, 향상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가치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대부분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조직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와 지식으로 대변되는 기록류(자료), 그것들을 담고 있는 물리적 또는(그리고) 논리적(전자적) 실체로서의 시설(건물)인 On-line 및 Off-line 도서관, 그리고 이 모두를 운영하고 있는 사서등의 세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도서관 3요소라 한다.

이런 도서관 역할수행의 필수 요소인 3요소가 실제적으로 현재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인식을 하고 사서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우선 자료를 생각해 보자. 관중별로 장서의 구성은 당연히 다르다. 또한 관중별 모체기관의 관심이나 지원 정도에 따라 장서의 양과 질의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관중과 단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다양한 이유가 장 큰 이유는 예산의 문제이지만...)로 인해 이용자의 요구 및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자도서관 체제에서는 도서관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물리적 및 서지적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각종 도서관들은 나름대로의 도서관 협력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관중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들의 이런 부단한 노력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료에 대해, 특히 양적인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료의 질적인 것과 더불어 물리적인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둘째는 건물(시설)이다. 오늘날에는 도서관이 자료를 소장하는 장소로서의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자료를 담고 있는 전자도서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모체기관 경영자는 '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 물리적인 공간이 불필요하거나 축소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현재의 도서관 공간을 축소 내지는 다른 용도로 할애해서 사용하려 하거나, 도서관에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특히 연구기관의 전문도서관경우는 더욱 더..).

그러나, 아무리 도서관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도 도서관이 단지 장서의 소장공간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님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부족한 공간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형태와 구조,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데에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첨단기능을 가진 인텔리전트 빌딩 개념의 도서관 전용 목적건물은 고사하고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의 일부분을 할애받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사고의 변화로 학교선택에 있어서도 학교시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인데, 관중에 관계없이 도서관이라는 시설은 언제까지 낙후된 채로 방치되고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야 하는가? 우리 도서관계와 사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대안 마련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서의 문제다. 경영이론에서는 경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요소로서 조직체의 존재 및 추구의 이유인 목적, 투입요소인 자원(물적, 인적, 재화, 정보 등), 이론, 기술과 실행(Do) 과정 등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조직체의 경영성과는 결정적으로 사람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서의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독서실 또는 지식이나 문화의 창달과는 관계없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사서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직 취업 현실은 참으로 보잘 것이 없다. 즉, 모든 도서관(또는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에서 사서의 수가 과거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일시적인 감원 이후 인력의 정체현상이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심지어 도서관 운영의 필수요원마저도 점차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과 비전문직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의 결과는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며, 도서관의 필요성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한 도서관의 사정은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항은 있으나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지키지 않게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된 지 오래다. 그 결과, 대분의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없이 자율독서실로만 운영되어 어릴 때부터 도서관의 모습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모든 도서관의 사서부족 문제는 도서관 자체의 문제를 넘어 지식정보화사회의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보(자료)를 원하는 이용자(讀者)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鑑材)를 필요한 때(適時)에 제공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관중별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필요한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도서관 3요소가 최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 전체가 합심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서가 신바람나게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